서울 복지 소식

영등포구, 사회적 자립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청 권장

영등포구 거주 발달장애인 969명.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시작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립을 도와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및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 권장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부로 공식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사업이 강화되어 이들의 개인별 지원과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개인별 지원사업은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각기 다른 욕구가 있다는 점을 기본 배경으로 하여 개인 특성을 고려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준다.

예를 들어 식욕조절이 어려워 체중이 많이 늘어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연계해주거나,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자격증 프로그램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개인에 이어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결정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가는 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업무를 할 때 타인이 법적으로 동의권한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인 지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특정후견심판청구비용(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되는데 소요되는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는 월 15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2135-3635),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3433-07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 시행에 앞서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5명을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정식 채용하는 등 이들을 위한 발빠른 지원으로 모범이 되어 왔다.

이후 매년 발달장애인을 채용해 현재까지 45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했으며 현재도 10명이 구청 휴게실, 도서관 등에서 근무 중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 7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김현구 기자 khg@

서울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앞장

학교시장 진입 적극 지원…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9일 오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스페이스 류에서 최근 정체 상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학교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17년도 공공구매 추진계획'을 공유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재확인하고 '가치구매'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학교)의 학교장터(S2B) 시스템 이용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설명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스템 등록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학교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은 학교시장 진입이 원활해지고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학교)은 해당 기업 제품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사회적 공헌,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해당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4년 12월 30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5년부터 매년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체 물품, 용역 구매금액의 3.8%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구매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5%를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공구매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구매박람회를 개최(2017년 5월 예정)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안전한 학교 만들자

서울교육청, 2017 학교 95교 127동 내진보강 사업계획 공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 추진하는 학교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부터는 내진공법 선정의 전문성 보완과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하여 공법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내진성능평가 검증절차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추진체계 개선은 지난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보강 예산투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사업계획 외부공개 ▲전문성 보완 및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한 공법선정 단계 개선 ▲최적의 공법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내진공학 전문가에 의한 내진설계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개선안에 따라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매년 400억 원을 투자하며 현재 26.5%인 학교건물 내진율을 2020년에는 41.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도 매년 40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2034년까지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학교 127동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계획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공개했다.

강동 선사문화축제 위해 뭉쳤다

20일 전문가·축제 실무자 모여 '현장밀착형 소토론회' 개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20일 강동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직원이 함께 모여 '현장밀착형 소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밀착형 소토론회'는 촘촘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행정추진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토론회의 일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의 송경희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100분간 진행됐다. 김주호 교수(배재대 관광이벤트 경영학과), 정연선((주)브랜드스토리 기획이사), 유리해 교수(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와 함께 지난 해 선사문화축제 총감독을 맡았던 임영택 디렉터가 함께했다.

또한 선사문화축제 실무 담당 직원 7명과 록록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신규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된 선사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1996년 처음 개최된 선사문화축제는 올해로 22회째를 맞는다. 지난 21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펼쳐졌던 선사문화축제는 지난 2009년 제14회 축제부터 '사람'을 주제로 '느림의 삶', '희망', '공존', '사람을 품었던 시대' 등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컨셉으로 삼고 있다.

2012년부터는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축제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주민참여형 축제로 점차 진화해가고 있다.

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주민과 축제 관람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밀착형 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22회 선사문화축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같이 축제 대표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강동만의 고유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선사문화축제는, 자체적인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세계시민을 매혹하는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송파구, 어린이활동공간 집중점검

면역력이 약하고 대사능력이 떨어지는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5월 말까지 공원과 아파트 놀이터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일제점검을 통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노출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우선 욕안으로 시설물의 부식과 노후화를 검사하고 바닥재로 사용된 토양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기생충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도료와 마감재, 목제 방부제 등은 휴대용 중금속측정기(XRF)를 이용해 납(Pb), 카드뮴(Cd), 6가 크롬(Cr6+), 수은(As)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올해부터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설 기준이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무바닥재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시설개선 또는 환경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고 이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에는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등 총 919곳의 어린이활동공간이 있다.

작년에 180곳의 유해물질 노출여부를 점검했으며 올해도 집중점검 기간 이후 11월까지 총 171곳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지자체 중 6번째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송파구는 아이들의 건강한 야외활동을 위해 환경안전관리 점검 외에 예방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5월 중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유해물질 예방에 관한 교재와 동영상 보급, 인형극 공연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환경유해물질에 더 취약한 만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겠다"며 "주변에서 녹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환경유해가 의심되는 놀이시설을 보는 경우 송파구 환경과(02-2147-3250)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보건소, 충치예방 불소용액 무료 배부

서울 광진구 내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아의 갯수가 2.65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 1.9개보다 0.75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구강건강에 대해 올바른 습관을 가져 지속적으로 구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진구 보건소가 구민들의 충치예방과 시린이 완화를 위해 불소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불소용액으로 꾸준히 양치질을 하면 치아표면이 단단하게 되고 충치(치아우식증)를 일으키는 세균증식을 억제시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20~30%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해진 치주조직과 잇몸퇴축 등으로 치아가 시린 경우 불소용액의 사용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쉬운 방법으로 치아건강을 챙길 수 있다. 보건소는 이달부터 0.05% 함유된 불소용액을 매일 1회 1분간 가글할 수 하는 양, 1개월 분량을 배부하고 있다. 배부되는 불소는 인체에 해가 없으며 치아표면 강화, 충치균 억제 및 손상받은 치아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